

幅一面이 朝鮮古蹟圖譜十四卷「二〇六七」面に 掲載되어 있었음을 여기에 밝히려는다. 朝鮮古蹟圖譜의 編輯에는 當時 無號 李漢福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함으로 아마도 그의 審美眼에 띄크일 된 것이 바로 이 海山帖中の 噴雪潭이었던 모양이다.

이 畫帖의 卷頭 첫장 空白에는 淡宕 畫 芝樵評 漳南寫라고 된 水墨山水一幅(想像金剛인듯)과 題跋이 있으나 이것은 之又齋의 作品과 直接 關係가 없고 또 이 海山帖이 그러한 以後의 것임으로 다른 機會에 이것을 밝힐 생각이다.

表紙의 題箋에는 「海山帖」 「英祖時人 河東鄭遂榮 字君芳 畫號 之 又齋」라고 있고 白蓮審定의 丸印이 찍혀 있으며 卷頭에는 큰 「學務衙門之印」이 찍혀있다.

——紙本淡彩 畫帖의 크기는 三二cm x 三七cm의 豎形——

註

- ① 海山帖中 自題跋記에 「餘以柳炭略寫」라는 句節이 보인다.
- ② 同卷頭自題跋文 東遊記末尾에 「餘於丁巳秋與呂軒適始遊此山遊覽之暇 略有模來冊本移寫于此
- ③ 檀城書畫徵所收 海東號譜에 「初名遂大字君芳號之又齋河東人南坡光緒七代孫 善畫有名」이라고 나와 있다.
- ④ 題跋에 「略做董黃諸大家筆移寫于之又齋時己未中冬也」라 있다.

長沙南齊博築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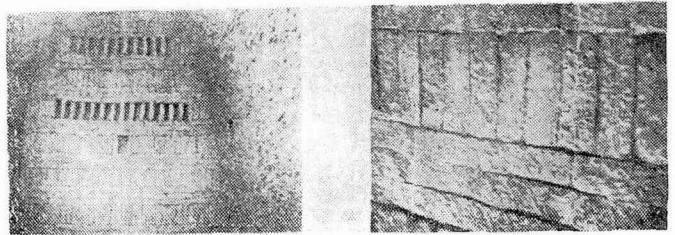
金 元 龍

中國 湖南省 長沙郊外에는 春秋戰國時代부터 明代에 이르는 各時代의 古墳 四千六百餘基가 있는데 그中에 六朝時代의 것이 四十七基가 된다. 그것을 다시 細分하면 東晉것이 二十七基, 南朝것이 十三基, 그리고 나머지

지가 隋墓로 되는데 東晉것은 모두 塋墳이고 그 構造는 우리 樂浪古墳과 같은 複室墓와 華南에서 盛行하는 長方形單室墓式의 두가지가 있고 南朝, 隋代의 墓는 塋墳과 土壙墓의 둘로 나누어진다. ① 그런데 南朝의 塋墳은 우리 公州塋墳과 構造上 酷似한 것이 있어 그中 紀年銘塋을 가진 南齊時代의 一墓를 紹介하여 百濟 魂宣傳과 그 自尊을 平生事業으로 하며 이제 回甲을 맞이하시는 百濟後人 洪思俊先生에게 外來文化를 받아드리는 데 서슴치 않았던 百濟魂의 一端을 보여드리며 같이 慶賀하러하는 바이다.

이 南齊墓는 北向한 羨道墳으로서 長方形의 玄室의 長 四・七四m, 前後幅 二・一八m, 中央幅 二・三五m 羨道長 二・一六m 前後幅 一・三六m, 中央幅 一・四八m로서 平面全形은 ㄱ字形이 되는데 玄室이나 羨道는 長壁이 모두 中央에서 若干外彎하고 있는것이 特色이며 이것은 樂浪塋墳에서나 우리 宋山里古墳에서도 보는 바로서 土壓에 對한 抵抗力을 增加하기 위한 것이다. 또 前後 短壁은 垂直으로 되어 있으나 左右 兩長壁은 天井部가 汽車「탄」처럼 穹窿形이며 平面 斷面이 우리 公州 宋山里第六號墳과 꼭 같다.

그리고 所用의 塋은 長 三三・一三六cm, 幅 一六一・一八cm, 厚 〇・五一〇・六cm의 灰青色塋이며 表面에는 蓮花文과 唐草文의 두가지가 陽刻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中에는 「齊永元元年己卯歲劉氏墓」라는 陽文銘文을 가진 것도 있어 이것이 正確히 四九九年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며 그年代는 우리 熊津時代에 該當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築造法에 있어서는 寫眞에서 보다시피 橫位로 三列을 쌓고 그위에 縱位로 一列 다시 橫三列 縱一列式으로 反復하였으며 壁中間部에가서 短壁에 一개, 左右長壁에 數末詳의 長方形 龕을 만들었고 그 위에는 縱位 博을 一枚씩 省畧해서 格窓같은 效果를 나타낸 二段의 橫列이 있다. 이러한 格窓壁은 우리가 公州 博墳에서 본 바로 그것이다.

한편 天井部를 위해서는 所謂 斧形博 卽 上寬下促의 博을 만들어서 아래 위를 建設하였고 바닥은 支室에서는 橫二枚 縱二枚의 鋪博法으로 바둑盤처럼 짜고, 羨道는 人字로 사자리 形으로 깔고 있다.

至今 盜掘로 因해 內部狀態는 攪亂되었으나 羨道와 支室東壁附近에서 陶鼎, 陶杯, 陶瓶, 陶硯, 陶碗, 陶盤, 그리고 石猪 등이 나왔고 따로 木欄의 存在를 表示하는 鐵釘들이 發見되었다.

x x x

以上이 永元元年(四九九年)銘博으로 築造된 南齊博墓의 대강인데 이 미 指摘한 바와 같은 構造上的 酷似點以外에 이 附近 다른 墓에서는 羨道에 六條의 排水溝가 있는 것이 있고 또 墓의 方向도 이 古墳은 北向이지만 그것은 特例이고 大部分은 南向으로 되어 있어 모두 公州 博墳과 通하고 있는 것이다. 百濟가 南朝各國과 密接한 文化交流를 하였고 特히 宋山里的 花文博이 南京附近出土의 梁代 花文博과 꼭 같다는 것은 이미 關野貞氏가 指摘한 바와 같으며 ② 最近에 筆者는 扶餘出土의 畫文方博이 亦是 南京附近出土의 六朝時代 墓博과 꼭 같다는 點을 指摘한 바 있다. ③ 至今 百濟의 文物에서 中國南朝의 要素를 들어내려면 이밖에도 얼마든지 있으며 우리는 새삼스러이 古代에 있어서의 開放의이고 必然의인 文化交流의 實相을 느끼게 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百濟의 體面이나 百濟魂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文化受容態度 위에서 百濟魂의 進取的인 面이 發展해 나간 것일 것이니 이 百濟魂의 傳統을 받들어 洪恩俊先生께서 너무 高句麗나 新羅같은 他國人을 輕視하지 않고 餘生을 더욱 을바른 百濟魂宣揚에 힘쓰시기를 懇切히 바라나이다.

註

① 「長沙兩晉南朝隋墓發掘報告」(考古學報一九五九年三期 pp. 75-105)

② 關野貞「博より見たる百濟と支那南北朝——特に梁との文化關係」(朝鮮の建築と藝術)(一九四一年東京所收 pp. 475-490)

③ 拙稿「韓國美術史研究의二、三問題」(亞細亞研究 VII-3 一九六四, 九, pp. 53-67)

傳 서울近郊出土 金銅如來立像

黃 壽 永

서울市와 廣州郡에 속하는 서울郊外 漢江流域은 先史遺蹟뿐 아니라 百濟古都城의 遺址로서 注目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같은 視點에서뿐 아니라 이地域은 百濟佛敎初傳의 땅으로 우리나라 佛敎美術 發生期의 遺物과 遺蹟이 期待되어 왔다. 그리하여 一九五九年 漢江 靑島附近에서 收拾된 高不過 五cm의 金銅如來 坐像은 과연 이와같은 기대에 보답한 것이며 이 地帶에 대한 關心을 한층 자극하여 준 바 있었다. 그것은 四世紀末 五世紀初의 우리나라 最古의 佛像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도 앞서서 이 地域 또는 그곳과 隣接된 곳에서 發見되었다고 傳하는 如來立像 一軀가 民間에 收藏되고 있는 事實을 數年前에야 알게 되었고 ① 그直後 現品도 調査할 수가 있어 이같은 新資料收拾을 多幸으로 여긴 바 있었다. 그러나 出土地點等 關係知見을 거의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現所藏者인 서울 李秉直氏에 의하면 解放直後인 一九四七年頃 一村婦가 이 佛像을 持參하고 南大門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와 그 부근에 자리잡고 있던 裴성관氏 古物商에 팔고 돌아간 것이라 하면서 이 女人이 往復할 수 있는 距離로서 廣州 또는 果川 等지가 아닐가 하였다. ② 이같은 推測은 막연하기 짝이 없어 그대로 믿고 立論